

루마니아 科學史紀行

朴 星 來

社會主義국가라니 대략 이렇고 이러리라는 짐작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막상 내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기까지 그런 생각들은 그저 지극히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내가 루마니아에 머문 것은 1981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3박 4일에 불과하지만 이 80시간도 안되는 경험은 가장 길고 지루하면서도, 돌이켜 보면 흥미있는 것이었다.

파리의 루마니아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한 全相運교수(誠信女大)와 나는 사흘을 점잖게 기다려 보았으나 대답은 『아직 본국정부의 지시가 없다.』는 정중한(?) 답변이었다. 비자발급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씩 세번을 미루는 것이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는 동안 부쿠레슈티에서는 우리가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키로 한 제16차 國際科學史會議가 개막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의에는 이미 東京에서 비자를 받은 金永植(서울大)교수와 개회식 전날 부쿠레슈티공항으로 돌진하여 비자를 따낸 宋相膺(前 成大)교수가 참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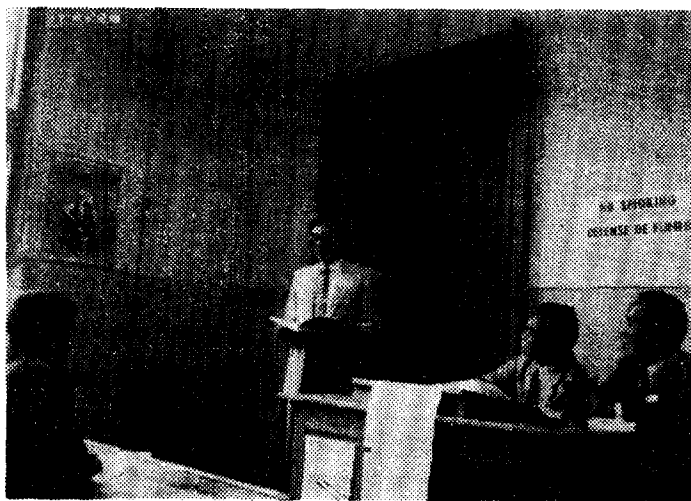
8월 31일(월) 아침 宋교수가 파리의 駐佛韓國大使館에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부쿠레슈티에는 가 보지 않고 대신 유럽구경을 더 착실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맙게도 宋교수의 전화와 대사관 申사무관의 중재로 우리는 벼락치듯 서둘러 그날 오후 부쿠레슈티의 공항비자를 얻어 입국할 수가 있었다. 파리의 영사관과는 전혀 달리 부쿠레슈티공항에서의 대우는 아주 정중하고도 친절했다. 공항 특별실에 全교수와 나를 앉혀 놓고 입국수속에서 호텔 예약까지를 다해 주었다.

콧수염을 기른 잘 생긴 청년이 숙칭 007가방을 들고 나타나더니 유창한 영어로 자기는 국립관광공사 직원이라며 우리를 입국시켜 주었다. 뚱뚱한 여자 세관원이 지키는 곳을 그 청년은 「뽕그레스」(大會) 어찌구 하며 나갔고 우리의 짐은 열어 볼 것도 없이 통과되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입국 창구도 외교관전용을 지나왔고 세관도 무검사 통과——모든 것이 특별대우였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대우를 받았는가는 세관 밖에서 차를 기다리는 동안 충분히 구경할 수가 있었다. 부쿠레슈티공항은 입국창구가 몇개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3층건물인데 바로 우리가 지나온 세관 검사대 위에서 검사원이 어느 입국자의 책을 한장한장 넘기고 있었다. 뒤에 들은 바에 의하면 특히 지식층의 출입국은 엄격히 통제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항을 통한 출입국자는 아주 적으며 그나마 외국인의 출입이 대부분인 듯했다. 우리가 입국했을 때이나 출국할 때 모두 공항에는 비행기 탑승객과 직원 이외의 수십명쯤밖에 없을만큼 공항은 한산했다.

그러나 부쿠레슈티거리는 제법 활기가 있고 트롤리 버스와 전차, 버스가 잘 발달되어 대중교통수단에는 불편이 없어 보였다. 공항에서 시내까지의 한산한 20킬로 거리와는 달리 火·水·木요일의 거리는 대낮에도 제법 사람들의 통행이 많았다. 西歐 여러나라에 비해 옷차림이나 거리가 좀 초라하긴 했지만 젊은 남녀가 서로 껴앉다시피 하고 다니는 모습도 자연스러웠다.

全교수와 내가 안내된 호텔은 도로반치라는 18층짜리였다. 객실이 298개나 되는 부쿠레슈티에서는 일류호텔급이다. 여기서부터 社會主義國家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나서니 복도는 컴컴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호텔 내부가 모두 칙칙했다. 천정을 보니 샹들리에도 달렸고 조명기구도 있었으나 불을 켜지 않기 때문이다. 호텔방의 구조는 다른 나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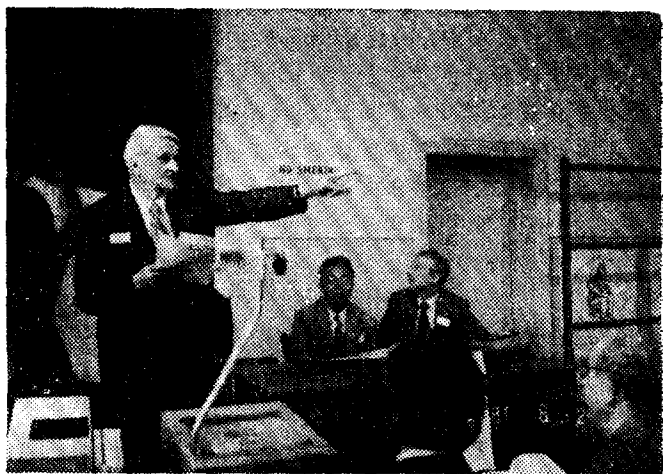
東아시아科學技術分科에서 발표하는 필자. 座長은 席澤宗(中國) · 渡邊正雄(日本) 교수

다. 어느 영화관에서는 미국 영화광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고 카바레 비슷한 곳도 있으나 모두 빈약한 정도이다. 자정 이후의 구경거리가 이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자정에 호텔의 수도물이 끊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듯도 하다.

이틀 동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욕을 하지 못했다고 큰 일 날 것은 없다. 한국인들끼리 이 共產主義國家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 신기하여 우리는 모여서 담소하다가 자정을 넘겼고, 그리고는 헤어져 목욕을 하려면 물은 이미 끊어져 있는 판이었다. 이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쿠레슈티의 사흘밤을 두다리 뻗고 잘 잤다. 아마 공항에서 정중한 대우를 받은 것이 크게 떨리던 가슴을 진정시켜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도착하여 여러 서방측 학자들을 만나 안심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 주는 경험은 도착한 날 저녁의 식당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이상한 나라에서 다시 만난 네 한국인들은 호텔에서 멀지 않은 생선전문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 전문식당답게 漁村의 냄새를 풍겨 놓은 이 식당에 우리가 자리잡고 앉자 웨이터가 왔다. 우리가 앉은 식탁에도 음식찌꺼기가 남아 있었는데 웨이터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수건을 꺼내 그걸 훔쳐갔다. 그것이 전부였다. 식탁보가 더럽진 말진 그것은 상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식탁에 도착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몇차례 재촉해 보았으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해 내온 음식은 주문한 것과 조금 달랐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문한 것이라고 웨이터는 有權해석을 해주었다.

비슷하게 되어 있었으나 침대 홑이불과 목욕 또는 세수용의 수건은 깨끗이 빨아 놓은 것이 풀개 없이 흐늘거렸다. 아마 직물의 질이 형편 없거나 또는 너무 오래 사용한 때문일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정 이후에는 물이 끊어진다는 사실이다. 전기는 주는데 더운 물도 찬물도 12시가 지나면 끊어졌다. 하기가 부쿠레슈티에서 자정이 지나 할 일이란 거의 없다. 통행금지 같은 것은 없고 밤거리의 치안상태는 좋은 듯하지만 밤 11시만 되면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시간에 여는 곳이라곤 외국관광객 상대의 유흥업소 몇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



中國科學史學者 니덤박사의 발표. 座長은 席澤宗 · 시빈(미국) 교수

이 땅에서는 웨이터의 인권이 최대로 보장되어 있는 듯했다. 어느 식당에 가나 손님은 웨이터가 음식을 갖다 줄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배가 고파 항의해 보았자 웨이터가 아직 음식이 안됐으니 기다리라든 그만이다. 웨이터는 조금도 미안해 하지도 않고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도대체 서비스니 「고객은 왕」이니 하는 말은 이 나라에는 상관이 없는 자본주의사회의 풍조임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회의장 로비에서 우리와 너무 닮은 몽고의 윤지씨와 함께

이 나라가 이 모양인 것도 당연한 것이 거리의 음식점도 모두가 개인 경영이 없고 웨이터도 말하자면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웨이터가 열심히 뛰여다니고 손님집대에 친절했다고 월급을 더 주는 법은 없고 보니 아무도 뛰여다닐 필요가 없다. 바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보니 배고픈 식당손님만 고생하기 마련이다.

길거리의 식당이 지저분하고 어둡고 음식도 粗惡한 데 비해 외국인이 주로 다니는 일류식당은 상당히 깨끗하고 음식이 맛있는 곳도 없지는 않았다. 물론 음식값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편이고 임금 수준이 낮은 루마니아 일반시민에게는 구경하기 어려운 값이지만 西歐에 비하면 일류식당도 값은 아주 싼편이었다. 우리 일행 셋(金교수는 먼저 귀국)이 일류호텔의 스카이 라운지 식당에서 좋은 포도주를 곁들여 점심을 잘 먹었는데 값은 370레이(16,000원쯤)——서울에서는 아마 두배 이상의 값이 들 것 같았다. 또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다른 일류식당에서도 값은 이 정도였는데 거기에는 재미로운 음악을 연주해 주는 악단도 있었다.

임금수준이 낮은 대개의 루마니아인에게 이런 곳은 그림의 떡이다. 그러나 거리의 식당이나 맥주집에는 제법 손님도 많았고 그런 곳에서는 값도 훨씬 싼다. 그렇다고 일류호텔의 식당이나 일류식당에 외국관광객만이 오는 것 같지도 않았다. 분명히 일부 특권층 루마니아 사람들은 최고급 생활을 즐기는 것이었다. 이 나라의 경제구조는 경제에 문외한인 나에게는 이상한 구석 천지였다. 아주 가난한 나라 같지도 않은데 초콜릿틀을 한개 샀더니 값은 우리 것 정도밖에 안했으나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이 이상한 냄새가 나고 모래 같은 것이 썩었다. 내가 머문 호텔에서 주는 빵은 西歐와는 비교가 안되게 맛없는 것이었고 버터는 늘 반쯤 녹아 있는 모양에 맛이 떨어졌다. 특히 코피라고 가저온 것은 한약냄새가 너무 심해 아예 두 모금을 마실 수가 없었다.

거리에는 상점 같은 것은 별로 많지 않은 편이고 또 물건은 보잘것 없었다. 특히 거리의 특이한 풍경은 여기저기 줄을 지어 채소·과일·우유를 사는 사람들을 아침저녁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아마 낭비가 없는 생산구조를 만드느라고 늘 공급을 조금 부족하게 하기 때문인듯, 이런 일용식품은 시간이 늦으면 못산다고 했다. 이 나라 경제생활에 더욱 놀라운 것은 무서운 달러 暗時勢였다. 동양인인 우리를 보고는 거리에서 日本人이라며 짧은 영어로 달려 좀 바꾸자고 접근해 오는 청년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처음에는 20대 1로 바꿔 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40대 1까지 환율이 높아졌다. 공정환율이 11대 1인 것을 감안하면 4배 이상의 암시세가 형성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가 있었다.

일용품은 반드시 부족한 것 같지 않았지만 음식이나 담배에서부터 특히 사치품에 가까와질수록 값은 엄청나게 비싸지고 또 미국상품에 대한 동경심이 아주 높았다. 양담배 켄트의 인기는 단연 비교



회의장 앞에서 미인 사무국직원 (한국담당) 과 기념촬영

가 안될 정도인데 식당 웨이터의 태도는 켄트 몇가피만 있으면 단연 달라지게 마련이다. 팁 주는 습관이 거의 없는 사회이므로 이런 것은 주문할 때 미리 주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미국 상품만이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 듯했다 부쿠레슈티공항에서 동행한 쉰교수가 러시아 말로 고맙다는 말을 하자 군복 입은 공항관리는 정색을 하고 충고해 주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러시아 말을 쓰지 마시오, 영어 아니면 佛語, 그것도 아니면 독일어가 더 잘 통할 것입니다.』 실제로 몇년 전부터 러시아어가 다른 외국어와 함께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루마니아의 고등학생들은 거의 러시아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어가 가장 널리 보급되고 있는 외국어이고 이번 국제과학사학회에서도 모든 것은 영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第16次 國際科學史會議에 우리가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나 개인에게도 값진 기회였고, 또 대국적으로도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모임은 53년전 시작되어 3,4년마다 열리는 것으로 이번 모임에는 51개국에서 1,800명(그중 상당수는 루마니아 사람)

이 모였고 1,200편의 논문이 16개분과에 걸쳐 발표되었다고 회의본부는 발표했다. 루마니아는 이 회의를 상당히 중시한듯 실권자 차우셰스쿠大統領과 함께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의 夫人 엘레나 차우셰스쿠 副首相(工博・高分子化學者)이 명예大會長으로 개회사를 하기도 했다.

夫婦가 실권을 장악한 독특한 공산독재국가 루마니아는 이大會를 공항入口에서부터 선전하기 시작했고 매일 신문・방송을 동원하여 보도해 주기도 했다. 이 모임이 서울에서 열렸다면 그렇게까지 법석스레 환영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여하간 그 덕택에 우리도 무사히 入國할 수 있었겠지만——.

크게 보아 이번 모임은 世界科學史學界에 東아시아科學技術分科가 중요성을 띠고 부각되기 시작한 轉機가 되었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 영국의 니덤, 美國의 시빈은 물론, 많은 西洋과 日本학자가 참석했으며 게다가 中共학자가 여러명 참가하여 東아시아 分科에서 크게 활약했다. 뿐만 아니라 北韓에서도 3명이 처음으로 이大會에 참석함으로써 우리의 관심을 높여 주었다. 8년전 東京에서 열린 제14회 대회부터 참가했던 한국은 이번에 이大會를 주관하는 國際科學史・科學哲學聯合(유네스코 산하기구)에 정식 가입하여 33번째의 會員國이 되었다. 먼저 도착한 宋相庸・金永植교수의 활약으로 우리의 加入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宋교수의 여러차례 교섭으로 우리는 9月 1日 오후에 열린 두번째회의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란 명패를 앞에 얹어 놓고 회의장에 참석했다. 北에서 온 세사람은 이 시간 동안 아는지 모르는지 東아시아科學技術分科에 셋이 나란히 앉아 내 發表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논문「18세기 韓國에 미친 西洋天文思想의 영향」은 원래 31日 天文學分과에서 발표하기로 일정에 는 인쇄되어 있었다. 그 시간에 나는 부쿠레슈티로 향하는 에어 프랑스 비행기 속에 있었기 때

문에 나는 발표를 안해도 되리라 생각하고 1日 오전의 東아시아分科의 방청객으로 앉아 있었다. 午前모임이 끝날 때, 일본의 中山茂박사가 갑자기 『어제 도착한 韓國의 朴星來박사의 논문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天文分科에서 발표를 못했으니 오늘 오후 여기서 발표해 줄 수 있겠느냐?』고 공개질문을 해 왔다. 분명히 그로서는 好意를 표시하기 겸 제기하는 의견이어서 나는 고맙게 이를 받아들여 午後발표의 마지막에 내 것을 넣어 달라고 말했었다.



부쿠레슈티 한복판에서 루마니아인 부부와 어울려

4시 20분으로 예정된 내 발표는 앞의 발표들이 늦어지고 토론이 휘파라 거의 6시에나 시작되었다. 내 발표에는 議長으로 中共 科學院의 科學史책임자 席澤宗, 座長으로 일본의 渡邊正雄가 앞에 나와 앉았고, 청중에는 너덤을 비롯 西洋과 中共, 日本의 학자들 20여명과 韓國의 全相運교수, 그리고 北韓학자 셋 등이었다. 발표와 질문이 끝나고 몇몇 학자들과의 의례적인 인사가 끝나고 둘러 보니 北韓사람들은 이미 간 곳이 없었다. 中共의 席澤宗도 수고했다고 인사를 하는데 한마디 우리말 인사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서운하다면 서운하기도 했다.

하기는 그들의 「無禮性」에는 일관된 무슨 원칙이 있는 모양이었다. 이날 오전 宋교수가 「科學과 社會」분과에서 발표했을 때도 그들은 발표가 끝나자 그냥 셋이 함께 사라졌다. 나는 이들 정성철(한국思想史)·문병우(한국中世史)·김성구(전공 未詳) 세 사람에게 이날 아침 처음 大會場에 나가자 곧 만나 인사를 했다. 그들은 악수를 했고 내 명함을 받았으나 그들의 명함을 주지는 않았다. 中共 학자들은 여자까지도 명함을 가져와 우리와 교환했으나 그들은 직함을 묻자 대답을 피했다.

金日成배지를 단 세 사람은 회의장인 부쿠레슈티大學 건물 안에서도 꼭 함께 다니는 것이 특이했는데 2일 오후 3시쯤 우리는 거의 30분이나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 나를 만난 정성철은 『어제 발표는 英語를 잘 알아 들을 수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역사에 대해 연구 발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어정쩡한 칭찬(?)을 해 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얘기에서 그들은 주로 자기들의 논문을 한국 학자들이 얼마나 읽고 있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統一院 도서관 등에 많은 北韓 歷史書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본 것까지 예를 들어 그들의 연구결과를 비교적 잘 알고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金日成배지를 단 세 사람은 회의장인 부쿠레슈티大學 건물 안에서도 꼭 함께 다니는 것이 특이했는데 2일 오후 3시쯤 우리는 거의 30분이나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 나를 만난 정성철은 『어제 발표는 英語를 잘 알아 들을 수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역사에 대해 연구 발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어정쩡한 칭찬(?)을 해 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얘기에서 그들은 주로 자기들의 논문을 한국 학자들이 얼마나 읽고 있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統一院 도서관 등에 많은 北韓 歷史書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본 것까지 예를 들어 그들의 연구결과를 비교적 잘 알고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北韓學者들은 한국의 역사 연구와 史料에 관심이 많은 듯했다. 그러나 震檀學會의 「韓國史」나 영인본으로 나오고 있는 「朝鮮王朝實錄」을 보았다는 정도일 뿐이었고, 연로한 國史學者 某교수의 日帝시대 논문을 예로 들어 우리 민족에 자랑스럽지 못한 분야의 연구는 마땅치 않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을 뿐, 한국의 國史연구 결과를 接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또 그들에게 전에 北韓 쪽에서 나온 「조선의 명인」이란 책을 보니 李滉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던데 그것은 唯物論思想에 합당치 않다고 退溪를 일부러 뺐 것이냐고 물어 보았다. 이에 대해 그들은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이 책은 인민학교(국민학교)에서부터 읽히는 대중용이어서 뺐지만 哲學史 연구에서는 물론 연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얘기가 좀 길어지기에 나는 바로 근처에 있는 휴게장소에 가서 차라도 나누며 얘기하자고 말했으나 그들은 그럴 것은 없다면서도 얘기는 계속했다. 大會 組織委員會의 사무직원들이 주욱 앉아 있는

북도에서 南北 각 3명씩의 한국인들이 길게 애기를 벌이자 주최측 직원 몇명은 혹시나 하고 기웃거리다가 아무 일이 없는 듯하자 빙글거리며 사라졌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내 앞에선 세 北韓 학자가 측은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金日成배지를 달고 국제회의에 나타난 이들 셋은 그들의 大使館에 묵으며 대사관의 車로 규칙적으로 회의장에 왔다가 가곤 하는 것이었다. 西方側 학자들과는 인사조차 하는 법도 없이 고립된 그들은 우리들이 모두 카메라를 들고 간 것과는 달리 한 사람도 카메라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리고 사진이나 함께 찍자는 우리측 제의에는 『통일 후에나 찍자.』고 응수했다. 그들의 측은한 모습이나 作爲的인 「無禮性」이 결국은 크게 보면 내 民族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은 개운치가 않았다. (舊稿)